고1국어 창비

2(4) 보지 못한 폭포 지문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교술 갈래(수필)의 특성을 묻는 문제
2. 자익이 본 폭포와 일행이 보지 못한 폭포(진짜 폭포)를 비교하는 문제
3.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내용 일치 문제)
4. 글쓴이의 경험과 이에 따른 정서 및 깨달음을 묻는 문제(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됨.)
5. 학습 활동에 제시된 지문에서 '탁'과 '족'의 의미를 묻는 문제(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됨.)

[지문 분석]

풍패동(風珮洞)의 동쪽은 바로 늠암곡(凜巖谷)(글쓴이가 찾아가려는 폭포가 있는 곳)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掃月石) 아래에 이르러 대천(大川)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 수필의 특성 ★수필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됨. 특히 학습 활동 지문과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갈래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주로 생활 속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가까이 있는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가 본 적이 없는 이유)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黃氏)가 아우 자익(子益)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출발하게 된 계기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마을 주민 황 씨는 글쓴이에게 폭포가 아름답다는 말을 전해 준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흔연히(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함께 갔다. [아우 대유(大有)와 조카 인상(寅祥)과 악상(嶽祥)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 다섯 명이 동행함.)

▶ 처음: 기이하다는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떠남.

골짜기 어귀(드나드는 목의 첫머리)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폭포로 가는 길을 알려 줌.)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노인의 외양 묘사)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일 리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말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 만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 숲(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음.)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폭포를 찾아가는 도중 골짜기 안의 아름다운 경치에 모두 감탄하고 즐거워 함. ★자연에 대한 감탄, 예찬이 나타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됨.)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오륙 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내(끝내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됨.)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멧부리는 빙 둘러서

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길을 헤매다가 쉬면서 바라본 그윽한 풍경에 마음이 즐거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찬탄이 나타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함.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폭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 준 것(노인이 알려준 폭포로 가는 길)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폭포로 가는 길이 맞지만 산등성이로 올라가기만 해서 길을 잘못 든 줄 알고 가다가 멈추게 됨.)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일행이 폭포 찾기를 그만두고 돌아가게 된 원인을 제공함.)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다.(자익이 본 폭포의 모습. 황 씨가 말한 폭포라고 여기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됨.)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허탈감이 드러나는 웃음) 말했다.

["이런 것(볼만한 것이 없는 폭포 ★폭포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에 기호 표시한 후 가리키는 대상이 이질적인 것을 고르는 문제, 진짜 폭포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됨.)을 구경하자고 발품(걸어 다니는 수고)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됨. 골짜기 어귀 → 골짜기 안 오솔길 → 골짜기 안 바위 위 → 한 갈래 좁은 길 → 비탈진 바위 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 다른 이의 말만 듣고 괜한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아 폭포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하는 글쓴이) 자익이 웃으며(쓴웃음)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실속 없이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못 믿을 인사](자익이 황 씨가 말만 번드레한 인사라고 생각한 까닭: 황 씨가 보잘것없는 폭포를 기이하다고 말하여 일행이 괜한 발품을 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 중간: 기이한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경치 구경 및 폭포 구경을 포기하게 된 일

황 씨에게 속고 만 것(폭포가 기이하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여김.)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자익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옴.)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자익이 본 폭포의 모습)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기이한 폭포, 황 씨가 말해준 폭포, 글쓴이가 가고자 했던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산등성이로 올라가던 길)이 바른 길(보려고 하던 폭포로 가는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진짜 폭포를 볼 수 있었음.)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비록 폭포를 보지는 못했으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함.)]([ ]: 글쓴이의 정서 및 깨달음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여정, 견문, 감상 등 기행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글쓴이의 정서 및 깨달음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자주 출제됨.) [유람(돌아다니며 구경함.)한 날은 신미년(1691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 글을 쓴 이유와 날짜를 밝힘. 어떤 일을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고 쓰는 글인

'기(記)'의 특성)

▶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깨달음과 글을 쓴 이유

–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학습 활동 지문 분석]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노인 목수의 그림을 본 일화에 따른 글쓴이의 정서, 수필의 특성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서두에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아주 다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노인 목수는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와 달리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지붕을 그렸음.)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주춧돌을 먼저 짓고 나중에 지붕을 지음.)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실제 현상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실제와 다른 방법을 고수하는 우리들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노인은 글쓴이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집을 그렸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나의 서가(書架)(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 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선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 노인 목수의 일화

차치리(且置履)(차치리라는 사람의 일화를 떠올림. 노인 목수의 일화와 대조되는 예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실제와 같은 방법을 추구하는 인물과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인물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형식)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본질)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 차치리의 일화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인물)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관념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주객이 뒤바뀐 사고, 주객전도 ★'탁'과 '족'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됨.)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글쓴이는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 ★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본질에 가려져 형식을 등한시하는 주객전도의 사고(思考)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의 생각

–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고1국어 창비

2(4) 보지 못한 폭포 지문 확인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풍패동(風珮洞)의 동쪽은 바로 늠암곡(凜巖谷)(글쓴이가 찾아가려는 폭포가 있는 곳)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掃月石) 아래에 이르러 대천(大川)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_____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 ____의 특성)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가까이 있는 곳이었지만 아직까지 가 본 적이 없는 이유)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黃氏)가 아우 자익(子益)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____하게 된 ____)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흔연히(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함께 갔다. [아우 대유(大有)와 조카 인상(寅祥)과 악상(嶽祥)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 다섯 명이 동행함.)

▶ 처음: 기이하다는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떠남.

골짜기 어귀(드나드는 목의 첫머리)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폭포로 가는 길을 알려 줌.)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노인의 _____)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일 리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말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 만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 숲(____적 배경이 ____임을 알 수 있음.)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폭포를 찾아가는 도중 _____ 안의 아름다운 ____에 모두 ____하고 즐거워 함.)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오륙 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내(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멧부리는 빙 둘러서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길을 헤매다가 쉬면서 바라본 그윽한 풍경에 마음이 즐거움, 아름다운 경치를 ____하는 것에 대한 _____)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시간의 경과, ____의 흐름에 따라 서술함.)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폭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 준 것(노인이 알려준 폭포로 가는 길)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____로 가는 길이 맞지만 산등성이로 올라가기만 해서 __을 잘못 든 줄 알고 가다가 멈추게 됨.)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일행이 _____를 그만두고 돌아가게 된 ____을 제공함.)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다.(____이 본 폭포의 모습. 황 씨가 말한 폭포라고 여기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됨.)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_____이 드러나는 웃음) 말했다.

["이런 것(볼만한 것이 없는 폭포)을 구경하자고 발품(걸어 다니는 수고)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____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됨. _____ 어귀 → 골짜기 안 오솔길 → 골짜기 안 바위 위 → 한 갈래 좁은 길 → 비탈진 바위 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 다른 이의 말만 듣고 괜한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아 폭포 보러 가는 것을 ____하는 글쓴이) 자익이 웃으며(쓴웃음)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실속 없이 겉모양만 번드르르한) 못 믿을 인사](자익이 황 씨가 말만 번드레한 인사라고 생각한 까닭: 황 씨가 _____없는 폭포를 ____하다고 말하여 일행이 괜한 ____을 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 중간: 기이한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경치 구경 및 폭포 구경을 포기하게 된 일

황 씨에게 속고 만 것(폭포가 기이하다고 했던 말이 ____이라고 여김.)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자익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옴.)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자익이 본 폭포의 모습)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기이한 폭포, 황 씨가 말해준 폭포, 글쓴이가 가고자 했던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_____로 올라가던 길)이 바른 길(보려고 하던 폭포로 가는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____하지 않고 갔으면 진짜 폭포를 볼 수 있었음.)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비록 폭포를 보지는 못했으나 ____적으로 생각을 ____함.)]([ ]: 글쓴이의 ____ 및 _____) [유람(돌아다니며 구경함.)한 날은 신미년(1691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 글을 쓴 ____와 날짜를 밝힘. 어떤 일을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고 쓰는 글인 '__(記)'의 특성)

▶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깨달음과 글을 쓴 이유

–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학습 활동 지문 확인]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노인 목수의 그림을 본 일화에 따른 글쓴이의 정서, 수필의 특성)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아주 다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노인 목수는 ____부터 그리는 우리와 달리 _____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____을 그렸음.)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주춧돌을 먼저 짓고 나중에 지붕을 지음.)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____ 현상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____와 다른 방법을 고수하는 우리들) 나의 서가(書架)(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 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선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 노인 목수의 일화

차치리(且置履)(차치리라는 사람의 일화를 떠올림. 노인 목수의 일화와 ____되는 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____)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____)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 차치리의 일화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____적 ____을 추구하는 인물)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____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____이 뒤바뀐 사고, _____)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글쓴이는 ____ 때문에 ____을 잊는 것을 ____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의 생각

–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고1국어 창비

2(4) 보지 못한 폭포 내신 암기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폭포>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기(記)
성격	경험적, 성찰적
주제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그에 대한 감상
특징	•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씀. •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상 및 깨달음을 밝힘.

2. 구성

처음	기이하다는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아우들과 함께 출발함.	경험
중간	• 골짜기 어귀에서 노인에게 길을 묻고, 골짜기 안의 경치에 감탄함. •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폭포를 보지 못함. • 폭포를 보았으나 볼만한 것이 없다는 아우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옴.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감상과 글을 쓴 이유	감상

3. 보지 못한 폭포와 이를 통한 깨달음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		
자익이 본 폭포	≠	보지 못한 폭포
• 볼만한 것이 없는 약한 물줄기의 폭포 • 길을 잘못 들어 보게 된 폭포		• 기이한 폭포 • 좀 더 애써서 갔다면 볼 수 있었던 폭포

감상과 깨달음
• 좀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 • 볼만한 폭포가 진짜 있는 것이므로 기쁜 일임. • 뒷날에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니 더욱 여운이 있음.

학습 활동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4. 제재 개관

갈래	수필
성격	체험적, 교훈적
주제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특징	• 대조되는 예를 통해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냄. • 유추의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함.

5. 구성

처음	노인 목수의 그림에서 받은 깨달음
중간	자신의 발보다 탁을 더 믿은 차치리의 일화
끝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사고의 중요성

6.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 및 깨달음

경험	→	정서 및 깨달음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면서 주춧돌을 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차치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림.	→	자신도 차치리처럼 주객이 뒤바뀐 사고를 한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음.

고1국어 창비

2(4) 보지 못한 폭포 내신 암기 TEST 1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폭포>

1. 제재 개관

갈래	고□ 수□, □(記)
성격	경□적, 성□적
주제	폭□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과 그에 대한 감□
특징	•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시□ 순서에 따라 씀. • 자신의 경□과 그에 따른 감상 및 깨□□을 밝힘.

2. 구성

처음	기□하다는 폭□를 구경하기 위해 아우들과 함께 출발함.	경□
중간	• 골짜기 어귀에서 노□에게 길을 묻고, 골짜기 안의 경□에 감□함. •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폭□를 보지 못함. • 폭□를 보았으나 볼만한 것이 없다는 아□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옴.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감상과 □을 쓴 이□	감□

3. 보지 못한 폭포와 이를 통한 깨달음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		
자익이 본 폭포	≠	보지 못한 폭포
• 볼만한 것이 없는 □한 물□□의 폭포 • □을 잘못 들어 보게 된 폭포		• 기□한 폭포 • 좀 더 애써서 갔다면 볼 수 있었던 폭포

감상과 깨달음
• 좀 더 □□가지 못한 것이 안□□움 • 볼만한 폭포가 진짜 있는 것이므로 기□ 일임. • 뒷날에 유□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니 더욱 여□이 있음.

학습 활동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4. 제재 개관

갈래	수□
성격	체□적, 교□적
주제	삶의 실□적 본□을 추구하는 것의 중□성
특징	• 대□되는 예를 통해 글쓴이가 지□하는 삶을 드러냄. • 유□의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함.

5. 구성

처음	노인 목□의 그림에서 받은 깨□□
중간	자신의 □보다 □을 더 믿은 차□□의 일화
끝	삶의 실□적 본□을 추구하는 사□의 중요성

6.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 및 깨달음

경험		정서 및 깨달음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면서 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충□을 받고, 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림.	→	자신도 차치리처럼 주□이 뒤바뀐 사□를 한 듯하여 부□□움을 느끼고, 형□ 때문에 본□을 잊는 것을 경□해야 함을 깨달음.

고1국어
창비

2(4) 보지 못한 폭포 내신 암기 TEST 2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폭포>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 □(記)
성격	□□적, □□적
주제	□□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과 그에 대한 □□
특징	•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 순서에 따라 씀. • 자신의 □□과 그에 따른 감상 및 □□□을 밝힘.

2. 구성

처음	□□하다는 □□를 구경하기 위해 아우들과 함께 출발함.	□□
중간	• 골짜기 어귀에서 □□에게 길을 묻고, 골짜기 안의 □□에 □□함. •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를 보지 못함. • □□를 보았으나 볼만한 것이 없다는 □□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옴.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감상과 □을 쓴 □□	□□

3. 보지 못한 폭포와 이를 통한 깨달음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		
자익이 본 폭포	≠	보지 못한 폭포
• 볼만한 것이 없는 □한 □□□의 폭포 • □을 잘못 들어 보게 된 폭포		• □□한 폭포 • 좀 더 애써서 갔다면 볼 수 있었던 폭포

감상과 깨달음
• 좀 더 □□□□ 못한 것이 □□□□ • 볼만한 폭포가 진짜 있는 것이므로 □□ 일임. • 뒷날에 □□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니 더욱 □□이 있음.

학습 활동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4. 제재 개관

갈래	□□
성격	□□적, □□적
주제	삶의 □□적 □□을 추구하는 것의 □□□
특징	• □□되는 예를 통해 글쓴이가 □□하는 삶을 드러냄. • □□의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함.

5. 구성

처음	노인 □□의 그림에서 받은 □□□
중간	자신의 □보다 □을 더 믿은 □□□의 일화
끝	삶의 □□적 □□을 추구하는 □□의 중요성

6.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 및 깨달음

경험	→	정서 및 깨달음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면서 □□□을 그리는 것을 보고 □□을 받고,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림.	→	자신도 차치리처럼 □□이 □□□ □□를 한 듯하여 □□□□을 느끼고, □□ 때문에 □□을 잊는 것을 □□해야 함을 깨달음.

고1국어 창비

2(4) 보지 못한 폭포 내신 암기 TEST 3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폭포>

1. 제재 개관

갈래	_____, __(記)
성격	____적, ____적
주제	____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____과 그에 대한 ____
특징	•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____ 순서에 따라 씀. • 자신의 ____과 그에 따른 감상 및 __ ____을 밝힘.

2. 구성

처음	____하다는 ____를 구경하기 위해 아우들과 함께 출발함.	
중간	• 골짜기 어귀에서 ____에게 길을 묻고, 골짜기 안의 ____에 __ __함. •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____를 보지 못함. • ____를 보았으나 볼만한 것이 없다는 ____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옴.	____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감상과 __을 쓴 ____	____

3. 보지 못한 폭포와 이를 통한 깨달음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		
자익이 본 폭포	≠	보지 못한 폭포
• 볼만한 것이 없는 _____의 폭포 • __을 잘못 들어 보게 된 폭포		• ____한 폭포 • 좀 더 애써서 갔다면 볼 수 있었던 폭포

감상과 깨달음
• 좀 더 _____ 못한 것이 _____
• 볼만한 폭포가 진짜 있는 것이므로 ____ 일임.
• 뒷날에 ____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니 더욱 ____이 있음.

학습 활동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4. 제재 개관

갈래	____
성격	____적, ____적
주제	삶의 ____적 ____을 추구하는 것의 __ ____
특징	• ____되는 예를 통해 글쓴이가 ____하는 삶을 드러냄. • ____의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함.

5. 구성

처음	노인 ____의 그림에서 받은 _____
중간	자신의 __보다 __을 더 믿은 _____의 일화
끝	삶의 ____적 ____을 추구하는 ____의 중요성

6.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 및 깨달음

경험		정서 및 깨달음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면서 _____을 그리는 것을 보고 ____을 받고, ____ __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림.	→	자신도 차치리처럼 _____ __를 한 듯하여 __ _____을 느끼고, ____ 때문에 ____을 잊는 것을 ____ 해야 함을 깨달음.